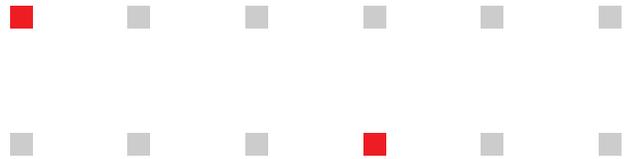




전라북도 중산층 두터워졌지만 빈곤층 감소는 여전한 과제



연구진 이중섭 부연구위원 welfare73@jd.re.kr
연구진 박신규 부연구위원 ko892ws@jd.re.kr

- Chapter 1 | 중산층 증가, 빈곤층의 감소로 소득분배구조 다소 개선
- Chapter 2 | 소득격차감소로 소득불평등도 낮아져
- Chapter 3 | 분배구조 개선됐지만 빈곤문제 해소는 여전한 과제
- Chapter 4 | 저소득 빈곤계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방안
- Chapter 5 | 결 론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3월 28일 vol.34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전라북도 중산층 두터워졌지만 빈곤층 감소는 여전한 과제

Contents

Chapter 1 중산층 증가, 빈곤층의 감소로 소득분배구조 다소 개선	3
Chapter 2 소득격차감소로 소득불평등도 낮아져	5
Chapter 3 분배구조 개선됐지만 빈곤문제 해소는 여전한 과제	6
Chapter 4 저소득 빈곤계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방안	
1. 중산층의 빈곤층화 차단을 위한 예방적 복지 확대	8
2. 여성, 저학력, 비정규 임금근로자에 대한 자립지원정책 강화	10
3. 고용수요 분석에 따른 좋은(decent) 일자리 창출	10
4. 생애주기별 빈곤정책의 패키지화	11
Chapter 5 결 론	12

Chapter 1

중산층 증가, 빈곤층의 감소로 소득분배구조 다소 개선

본 자료는 한국노동패널(9차-11차)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빈곤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한국노동패널은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노동시장활동, 소득,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사항을 추적조사하는 종단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자료인 한국노동패널 11차 자료(2008년)는 2010년에 공개된 자료로 지역별 소득자료를 근거로 빈곤의 동태적 상황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 최근 3년 사이(2006년-2008년) 중산층은 48.5%에서 52.2%로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은 28.2%에서 2008년 27.8%로 감소함
- 저소득층은 2006년 28.2%에서 2008년 27.8%
- 로 감소, 중산층은 2006년 48.5%에서 2008년 52.2%로 증가, 고소득층은 2006년 23.3%에서 2008년 20.1%로 3.2%p 감소

〈표-1〉 지역별 소득계층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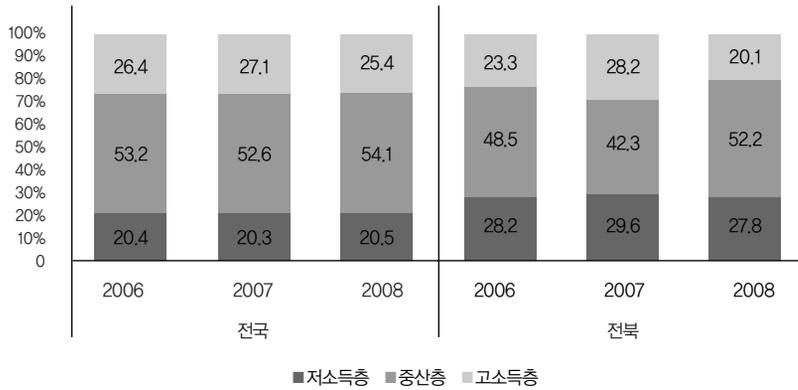
	저소득층 (중위소득 50%미만)			중산층 (중위소득 50%~150%미만)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이상)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17.9	18.0	18.5	49.5	49.4	52.6	32.5	32.7	28.9
부산	25.7	21.5	23.2	53.0	53.8	54.3	21.4	24.8	22.5
대구	22.9	20.2	24.1	59.6	59.9	57.0	17.5	19.9	18.9
대전	15.1	18.8	17.4	51.3	49.3	55.0	33.6	31.9	27.5
인천	17.3	23.6	22.1	58.5	52.2	58.8	24.2	24.3	19.0
광주	21.9	18.5	25.8	47.7	56.3	45.8	30.3	25.2	28.4
울산	12.7	6.7	6.8	50.0	48.7	50.8	37.3	44.5	42.4
경기	17.1	16.2	15.3	54.3	53.9	55.3	28.6	29.9	29.4
강원	29.1	24.2	27.6	55.6	57.8	51.2	15.4	18.0	21.3
충북	19.3	21.5	20.0	62.2	64.5	63.1	18.5	14.0	16.9
충남	28.7	29.5	26.9	54.5	50.9	54.3	16.8	19.7	18.9
전북	28.2	29.6	27.8	48.5	42.3	52.2	23.3	28.2	20.1
전남	19.0	25.5	23.6	50.0	46.2	50.7	31.0	28.3	25.7
경북	30.7	30.7	31.1	51.9	54.2	57.5	17.4	15.2	11.4
경남	17.3	19.9	19.5	57.2	54.7	50.9	25.5	25.4	29.6
전국	20.4	20.3	20.5	53.2	52.6	54.1	26.4	27.1	25.4
전국-전북	+7.8%	+9.3%	+7.3%	-4.7%	-10.3%	-1.9%	-3.1%	+1.1%	-5.3%

* 제주는 제외

* 소득범주는 OECD기준 가구균등화소득 보정이후($Y^*=Y_i/\sqrt{S_i}$) 중위소득 기준으로 분석($Y^*=i$ 의 가구소득, S_i =가구의 가구원수 그리고 $Y^*=i$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

➡ 2006년 이후 중산층(중위소득 50%이상 150%미만)은 증가하여 중산층은 두터워졌지만 저소득층은 유동적 변화가 거의 없었고, 고소득층은 증감을 반복함

〈그림-1〉 지역별 소득계층의 변화



- ➡ 중산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은 2008년 현재 27.8%로 전국 평균 20.5%보다도 7.3%p 높게 나타남
- ➡ 중산층의 증감은 주로 저소득층의 증감에 따른 결과보다는 고소득층의 증감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 전라북도 분배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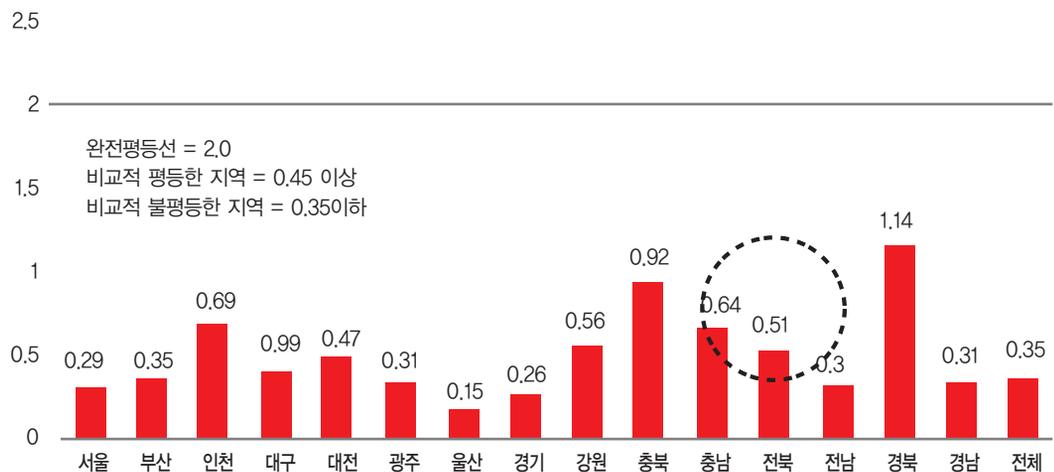
Chapter 2

소득격차감소로 소득불평등도 낮아져

▶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최하 1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2.44%로 경북(3.70), 충남(2.7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10분위 분배율이 전라북도(0.51)로 불평등 기준선인 0.45에 비해서 높은 편임

〈그림-2〉 지역별 10분위 분배율



자료 : 한국 노동패널 11차 원자료 분석

▶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의 10분위 분배율은 경북(1.14), 충북(0.92), 인천(0.69), 충남(0.64), 강원(0.56)에 이어 여섯 번째로 낮고, 소득불평등

이 심한 지역으로는 서울(0.29), 전남(0.30), 경남(0.31), 부산(0.35) 등의 순서로 나타남

〈표-2〉 지역별 10분위 분배율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1분위	1.13	1.60	2.01	0.80	1.38	1.96	0.28	1.07	2.32	1.99	2.77	2.44	1.66	3.70	1.53	1.48
2분위	3.04	4.22	4.86	2.99	3.75	3.72	0.80	2.18	4.95	3.57	4.42	4.88	3.64	6.11	2.86	3.29
3분위	4.60	4.16	7.49	5.37	5.60	2.86	4.78	3.87	4.91	7.10	8.44	6.41	4.18	6.34	3.87	4.80
4분위	5.52	4.60	10.08	5.83	5.98	5.36	3.15	5.33	10.22	12.69	8.18	5.76	5.99	10.95	6.39	6.20
5분위	7.14	7.74	6.10	7.34	8.77	6.15	4.71	7.95	6.61	10.51	4.95	10.80	6.04	11.29	5.01	7.43
6분위	8.02	10.01	10.77	6.91	9.77	12.19	6.05	8.26	11.04	10.96	9.32	11.81	10.74	13.88	8.86	9.16
7분위	9.09	13.96	10.16	14.36	14.82	7.78	8.77	11.04	7.47	12.63	9.72	8.48	6.12	12.73	11.68	10.68
8분위	11.98	12.35	13.21	18.40	14.53	15.45	9.65	12.32	12.50	12.96	15.20	11.40	10.62	11.17	13.13	12.61
9분위	15.32	14.90	12.64	16.44	14.32	19.05	17.24	16.83	14.59	11.82	13.22	17.91	16.52	13.17	20.14	15.87
10분위	34.16	26.46	22.68	21.56	21.08	25.48	44.57	31.15	25.39	15.77	23.78	20.11	34.49	10.66	26.53	28.48
하위40/상위20	0.29	0.35	0.69	0.39	0.47	0.31	0.15	0.26	0.56	0.92	0.64	0.51	0.30	1.14	0.31	0.35
상위10/하위10	30.31	16.58	11.29	27.06	15.33	13.00	157.86	29.03	10.96	7.92	8.60	8.26	20.73	2.88	17.29	19.24
상위20/하위20	11.88	7.11	5.14	10.04	6.91	7.84	57.16	14.73	5.50	4.96	5.15	5.20	9.62	2.43	10.63	9.29
하위20% 소득점유율	4.17	5.82	6.87	3.79	5.13	5.68	1.08	3.26	7.27	5.56	7.19	7.32	5.30	9.81	4.39	4.77
하위40% 점유율	14.28	14.58	24.43	14.99	16.71	13.90	9.01	12.46	22.39	25.36	23.81	19.49	15.47	27.10	14.66	15.77
상위20% 소득점유율	49.48	41.36	35.32	38.01	35.41	44.53	61.82	47.97	39.99	27.59	37.00	38.03	51.00	23.83	46.66	44.35

자료 : 한국노동패널 11차 원자료 분석

10분위 분배율은 소득의 양극화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10분위 분배율은 가구의 소득을 크기별로 10개 집단으로 나눈 다음, 하위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소득을 합한 후 소득이 높은 9등급과 10등급 소득을 합한 것을 나눈 값(하위 40%의 소득점유율/소득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말한다. 10분위 분배율 값이 2로 갈수록 평등하고 0으로 갈수록 불평등하다.

Chapter 3

분배구조 개선됐지만 빈곤문제 해소는 여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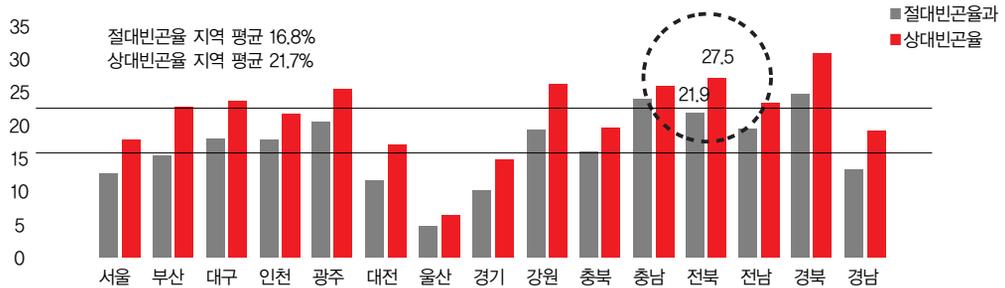
- ▶ 분배구조의 개선에도 전북의 빈곤인구는 여전히 높아 빈곤문제 해소 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라북도가 전체인구의 6.1%
 - 가구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율은 21.9%
 - 중위소득 50%이하 상대적 빈곤율은 27.5%

〈표-3〉 지역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2.1	4.1	4.3	2.7	4.6	3.3	1.7	1.9	4.4	3.8	3.7	6.1	5.8	4.7	3.3
절대빈곤율	12.9	15.4	18.1	18.0	20.8	12.1	5.1	10.6	19.5	16.2	24.0	21.9	19.6	24.9	13.7
상대빈곤율	18.1	23.0	23.8	21.7	25.6	17.4	6.8	15.1	26.7	19.8	26.3	27.5	23.6	31.0	19.4

주1 : 절대빈곤율은 가구 총소득을 당해연도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하로 산출
 주2 : 상대빈곤율은 가구균등화소득 보정 후 중위소득 50%이하로 산출

〈그림-3〉 지역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 ▶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소득격차는 근로 소득과 부동산소득 격차에 기인
- 전라북도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을 보면, 중위 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은 연평균 근로소득이 연 678만으로 중산층 2,627만원의 25.8%에 불과
-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부동산소득은 2006년 연평균 9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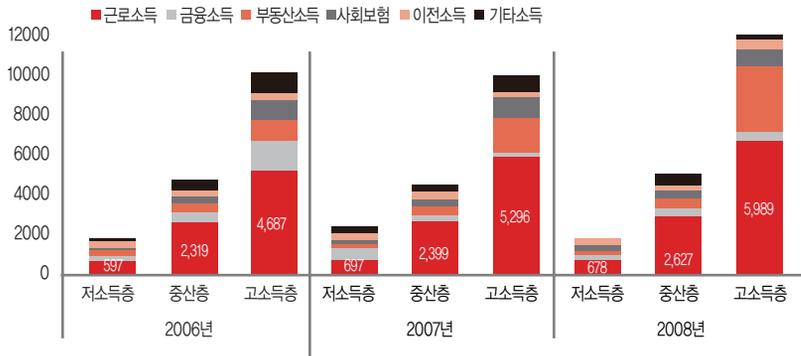
- 에서 2,901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고소득층의 총소득증가가 대부분 부동산 소득의 증가에 기인
- ▶ 고소득층의 소득원 중 부동산소득의 급증은 저소득층과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특히, 전라북도의 저소득층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과는 달리 2006년과 2007년에 비해서 2008년 총소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4〉 소득계층별 소득구성의 변화추이

	전국									전북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근로소득	742	755	808	2,431	2,525	2,753	5,380	5,667	6,206	597	697	678	2,319	2,393	2,627	4,687	5,296	5,989
금융소득	206	189	209	291	279	310	618	635	645	276	480	270	495	257	299	1347	167	436
부동산소득	256	361	302	716	677	630	2,958	4,162	3,191	226	237	131	355	384	428	910	1591	2,901
사회보험	172	214	219	538	586	616	871	1,043	1,163	129	149	256	361	371	415	875	891	803
이전소득	304	311	308	235	269	258	466	527	655	276	311	282	250	305	215	332	208	373
기타소득	165	221	145	473	365	414	2,989	1,855	2,191	40	336	0	511	332	590	979	790	225
총소득	708	723	737	2,566	2,690	2,913	6,732	7,003	7,388	670	710	624	2,521	2,608	2,815	5,890	5,999	6,591

자료 : 한국노동패널 9차, 10차, 11차 원자료 분석

〈그림-4〉 전라북도 소득계층별 소득구성의 변화



Chapter 4

저소득 빈곤계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방안

1. 중산층의 빈곤층화 차단을 위한 예방적 복지 확대

-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미수급 빈곤계층이 상당수 존재함
- ▶ 미수급빈곤계층은 사실상 빈곤계층이지만 부

양의무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으로 이 계층은 제도적으로는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있어 언제든지 법정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취약계층임

- 전라북도의 최저 생계비 미만 미수급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15.7%로 추정

〈표-5〉 미수급 빈곤층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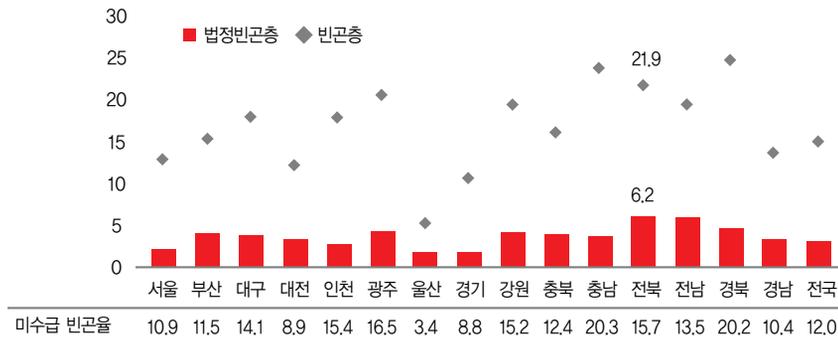
	ML100% 이하 (극빈곤층)a	ML120%이하 (차상위계층)b	ML150% (빈곤위험계층)c	법정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d	a-d	b-d	c-d
서울	12.9	18.4	25.4	2.0	10.9	16.4	23.4
부산	15.4	22.2	30.0	3.9	11.5	18.3	26.1
대구	18.1	24.3	34.7	4.0	14.1	20.3	30.7
대전	12.1	16.1	28.2	3.2	8.9	12.9	25
인천	18.0	23.7	31.9	2.6	15.4	21.1	29.3
광주	20.8	24.7	30.5	4.3	16.5	20.4	26.2
울산	5.1	7.6	16.1	1.7	3.4	5.9	14.4
경기	10.6	15.5	22.5	1.8	8.8	13.7	20.7
강원	19.5	25.8	33.6	4.3	15.2	21.5	29.3

	ML100% 이하 (극빈곤층)a	ML120%이하 (차상위계층)b	ML150% (빈곤위험계층)c	법정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d	a-d	b-d	c-d
충북	16.2	20.0	29.2	3.8	12.4	16.2	25.4
충남	24.0	29.1	36.0	3.7	20.3	25.4	32.3
전북	21.9	25.7	34.3	6.2	15.7	19.5	28.1
전남	19.6	23.6	31.8	6.0	13.6	17.6	25.8
경북	24.9	31.5	37.4	4.7	20.2	26.8	32.7
경남	13.7	18.3	26.5	3.3	10.4	15.0	23.2
전국	15.1	20.3	28.0	3.1	12.0	17.2	24.9

자료 : 한국노동패널 11차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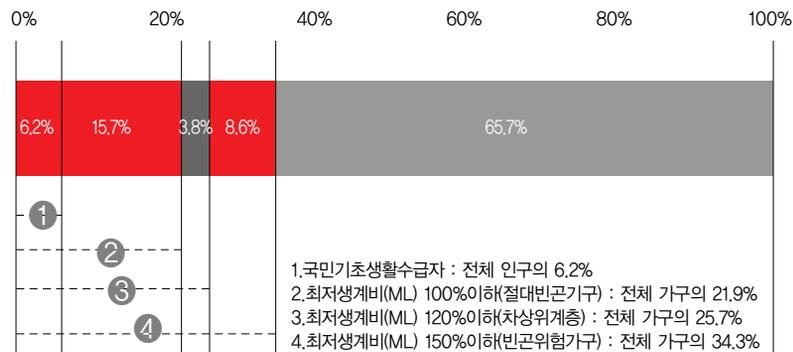
빈곤선을 최저생계비 120%의 차상위계층으로 설정할 경우 미수급 빈곤층은 19.5%까지 증가하고, 최저생계비 150%의 빈곤위험계층까지 빈곤층을 확대할 경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수급 빈곤층은 28.1%에 이를 것을 추정

〈그림-5〉 지역별 미수급빈곤율 현황



자료 : 한국노동패널 11차 raw data 분석
 • 가구당 최저생계비 적용 빈곤율 산출

〈그림-6〉 전라북도 빈곤층 현황



▶ 미수급 빈곤층 21.9%의 가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이 계층은 법정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여성, 저학력, 비정규 임금근로자에 대한 자립지원정책 강화

- ▶ 전라북도의 저소득층은 주로 저학력, 임금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와 비정규직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임금형태에서는 비임금보다는 임금 근로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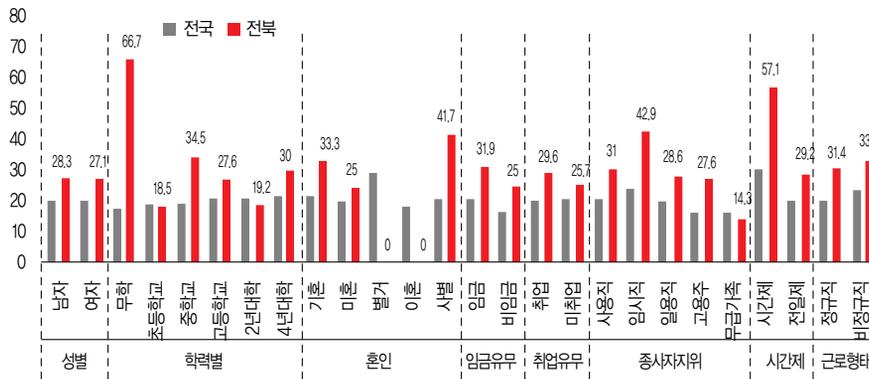
저소득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하는 빈곤층 즉 근로빈곤층 인구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아울러,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직 근로자의 저소득 빈곤비율이 42.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저소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저소득계층의 인구학적 특성은 전국 가구의 저소득 계층의 양상과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저학력 근로빈곤 인구의 경우 높은 노동시장 장벽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사회적 임금과 개인의 적극적인 근로활동을 병행하는 빈곤해소 전략 필요

〈그림-7〉 저소득 빈곤계층의 특성



3. 고용수요 분석에 따른 좋은(decent)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의 중산층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구성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근로소득을 확대해야 하고, 근로소득의 확대는 저소

득층의 취약한 인적자본을 개선해야만 가능함

▶ 전라북도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IMF 직후인 2002년 28.2%에서 2009년 현재 29.7%로 유동적 변화가 미미한 상황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02년 10.4%에서 13.3%로 증가함

〈표-6〉 전라북도 근로형태별 종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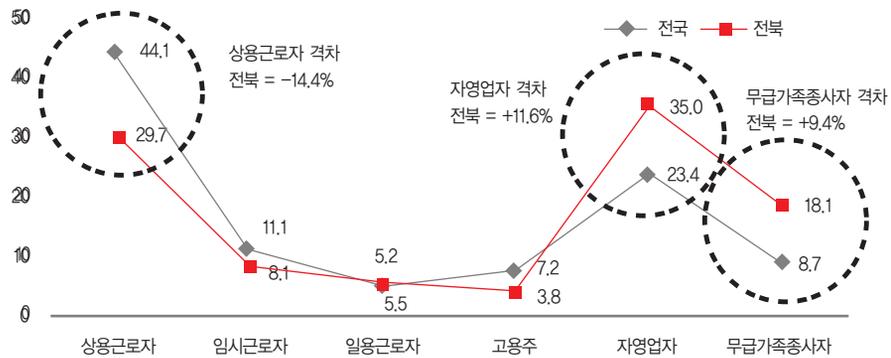
구분	근로형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임근 근로자	상용근로자(정규)	28.2	31.3	29.1	24.3	33.8	25.6	36.8	29.7
	임시근로자(a)	-	-	-	-	-	-	11.7	8.1
	일용근로자(b)	-	-	-	-	-	-	7.6	5.2
	비정규직(a+b)	10.4	13.3	8.0	11.4	17.3	15.5	19.3	13.3
	전체	38.6	44.6	37.1	35.7	51.1	41.1	75.4	56.3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3.3	3.9	2.0	4.0	5.6	5.1	3.5	3.8
	자영업자	37.4	39.1	39.2	41.2	29.6	35.9	27.7	35.0
	무급가족종사자	20.7	12.4	21.7	19.1	13.7	17.8	12.6	18.1
	전체	61.4	55.4	62.9	64.3	48.9	58.8	43.8	56.9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각연도 원자료 분석

특히 전라북도의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상용근로자의 비율인 44.1%보다도 14.4%나 낮은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전국 평균보다도 각각 11.6%, 9.4% 높게 나타남

결국, 빈곤계층의 중산층화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확대를 유인해야 하지만 지역 노동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 고용시장을 개선해야 함

〈그림-8〉 전국-전북 근로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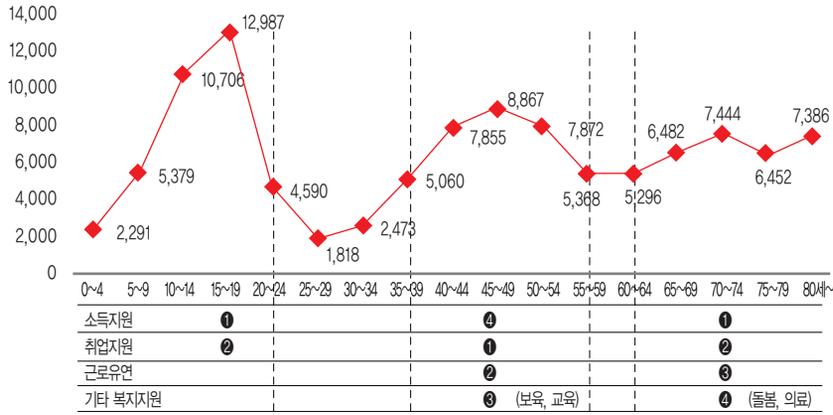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 분석

4. 생애주기별 빈곤정책의 패키지화

생애주기의 사회적 위험에 따른 복지정책의 생애주기별 대응으로 5세미만의 영유아시기 그리고

노동시장의 진입과 실업이 반복되는 30대와 40대의 청장년층 은퇴가 이루어져 소득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청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자원과 제도적 지원이 집중되는 형태를 보임

〈그림-9〉 생애주기별 기초생활수급자와 빈곤정책 유형



주 : ①~④ 생애주기별 정책우선순위

▶ 생애주기별로 소득지원, 취업지원, 근로유인정책 그리고 기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차별적인 빈곤정책으로 대응해야 함

Chapter 5

결론

- ▶ 전라북도의 중산층은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소득구성비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 하지만 중위소득 50%이하 빈곤계층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전북의 산업, 계층상 농촌사회의 생산성 미비와 고령화구조가 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저소득층의 중산층화를 통한 중산층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의 상향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소득의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함. 근로소득의 확대는 저소득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

- ▶ 때 노동시장은 반드시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되어야 함
- ▶ 저소득계층을 양질의 일자리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소득계층의 취약한 인적자본을 개선할 수 있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고용시장 수요에 대응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
- ▶ 또한 전북의 저소득 계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사회의 고령화된 인력을 중심으로 농업을 산업화하는 방식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